

제156호

행 정 명 령

뉴욕주 예산 또는 후원에 의거한 미시시피 주로의 출장 금지

뉴욕주는 모든 주민들의 민권과 자유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전국적 리더입니다;

1945년에 뉴욕주는 차별을 반대하는 주 법률을 미국에서 최초로 제정하였으며, 그 법률은 이제 연령, 인종, 신조, 피부색, 출신국, 성적 취향, 군필 여부, 성별, 혼인 여부 및 장애를 포함하여 많은 기준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합니다;

레즈비언, 게이, 양성애자 및 성전환자(LGBT)의 민권과 자유를 보호하는 것은 주 정부가 인정하는 강력한 관심사입니다;

뉴욕주가 LGBT에 대한 차별에 부지불식간에 재원을 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주 정부가 인정하는 강력한 관심사입니다;

미시시피 주는 LGBT와 미혼자에 대한 법적 차별을 명백하게 허용하고 이를 문서화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;

자유 사회에서는 LGBT 시민을 포함한 모든 시민의 평등권이 보호되고 소중히 여겨져야 합니다;

자유 사회에서는 다수의 의지가 소수에 대한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;

공정성을 진흥하고, 뉴욕주 주민의 복리를 보호하며, 차별과 싸우는 것이 뉴욕주의 정책입니다;

따라서 본인 Andrew M. Cuomo는 뉴욕주지사로서 본인의 직무, 뉴욕주 헌법 및 뉴욕주 법령이 본인에게 부여한 권능과 권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명령하고 지시합니다:

- LGBT 시민과 미혼자들에 대한 차별을 허용하고 이를 문서화하는 법이 효력을 발휘하는 한 모든 기관, 부서, 이사회, 청 및 위원회는 뉴욕주 예산 또는 후원에 의거한 미시시피 주로 가는 출장 요청을 모두 검토한다;
- 그러한 장소로의 출장이 뉴욕주 법률의 시행을 위해, 이전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, 또는 공중 보건, 복리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지 않은 한 공공 예산 또는 후원의 그러한 출장을 금지할 것;

공공 예산의 출장에 대한 뉴욕주의 금지는 즉각 발효되며, 동 법률이 폐지될 때까지 지속됩니다.

이천십육년 사월 오일 Albany시에서 본인 자필 및
주 인세로 내림.

주지사

주지사 비서